中企 제약업계 첫 '공동물류센터'… 의약품 물류비 30% 절감

피코이노베이션 준공식 개최
자동화 창고 등 3.6만셀 규모
피킹시스템 등 첨단설비 갖춰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주도해 설립한 피코이노베이션이 9일 오전 경기 평택 드림산업단지에서 첨단 공동물류센터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서 (왼쪽 6번째부터)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근 일성신약 회장,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총괄 사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약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2년 가까이 공들인 첨단 자동화 공동물류센터가 경기 평택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활한 약품 수급과 물류비 절감이 제약 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덕에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피코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드림산업단지에 제약업계 최초의 공동물류센터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1년 5월 첫 삽을 뜬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피코이노베이션은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주도해 설립한 제약 물류 전문회사다. 2020년 7월 당시 10여개 제약사들이 출자한 이후 지금은 참여사가 26곳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를 한국제약협동조합이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공동 물류센터를 통해 참여 제약사들은 창고 부족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물류 비용도 기존 대비 3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잔여부지에는 제2의 제약 공동 물류센터 및 의료기기 전용 물류센터도 추가로 구축해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용을 드러낸 첨단 자동화 제약 물류센터는 드림산업단지 내 총 1만6000여평의 부지 가운데 1차로 대지 5200평, 연면적 1만2500평 규모(지상 5층, 지하 1층)로 구성돼 있다.

물류센터는 자동화 창고 2만4000셀을 포함해 총 3만6600셀 규모로 피킹시스템 등 첨단 자동화 설비와 냉장·냉동창고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제품 보관, 선별 및 포장, 배송 등의 출고 업무 뿐만 아니라 반품, 회수까지 담당하는 '토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센터가 위치한 드림산업단지는 평택~화성간 고속도로와 평택~제천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이들 고속도로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매우 편리하다. 서해로 나가는 평택항과도 가깝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동 물류센터 참여 기업 대표자와 협력사 관계자 들을 비롯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중견 제약사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조합원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체다. 조합은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인 시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제약조합은 공동시험센터 활성화 및 향남제약공단 내 대규모 시설 보수 등 투자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동 물류센터에 이어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중소·중견 제약사들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조성에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업부, 중견기업 혁신펀드 5년간 1조 조성

올해 특화펀드 2150억원 조성
민간펀드도 2024년 출시 목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올해부터 5년간 총 1조원 규모 중견기업 전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장영진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성장금융 등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민·관 협력 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견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4개사가 출자에 참여하는 등 차세대 젊은 경영인들이 펀드 조성에 함께한다. 참여 중견기업은 와이지-원, 에스디바이오센서, SIMPAC, 한국카본으로 각 25억원을 출자한다.

이번 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이들 중견기업 출자금 100억원과 정책자금인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을 기반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신규 투자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도록 2027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우선 이날 출범한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11월부터 1차 펀드 투자가 시작되고, 올해 안에 1000억원 내외의 2차 펀드 조성도 착수하는 등 2025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조성한다.

또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5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중견 도약펀드' 조성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간 협력모델에 투자하는 '중견 연합형 벤처모펀드'는 중견기업 출자금 등 100% 민간재원을 활용해 2024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인수합병 등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인 창조기업 91.7만개… 1년새 2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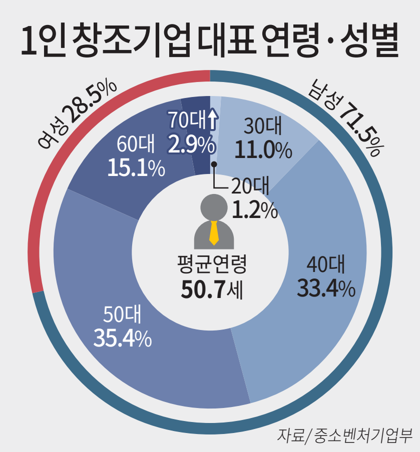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포함
분류 기준 변경돼 '착시효과'

1인 창조기업이 분류 기준 변경으로 1년만에 2배가 넘게 늘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32개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내놓은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숫자는 91만736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의 45만8322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1년새 크게 늘어난 것은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에 그동안 조사에서 빠졌던 가구 내 사업체인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1년전과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018년엔 42만7367개였다. 대표자 연령은 평균 50.7세, 성별은 남성이 71.5%, 여성이 28.5%로 남성이 많았다. 2021년 기준 기업당 매출액은 평균 2억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15.3개월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한진 '카고 바이크' 친환경 배송 강화

㈜한진이 전기를 사용하는 카고바이크를 도입 운영하며 친환경 배송에 추가로 나선다.

9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에 카고 바이크 1대와 전담 택배기사 1명을 투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서울 일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카고 바이크'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운송수단이자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이 불가한 지역 내에서 근거리 라스트마일(Last-mile) 배송에 최적화된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 개의 바퀴가 최대 130㎏까지 적재할 수 있는 차체에 안정감을 주고 4시간의 충전으로 63㎞를 주행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고용부, 특고 돕는 지자체에 최대 3억 지원

〈특수고용직〉

지자체 15곳… 민간기업 1곳 선정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일터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은 소요 비용의 50%까지, 최대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차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5곳과 민간 기업 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터 개선 사업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최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최소한의 안전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터 개선 사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역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배달 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계획도 제출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올 50세이상 재취업자에 최대 50만원

올해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곳

직무훈련 등 재취업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돼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 공고는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